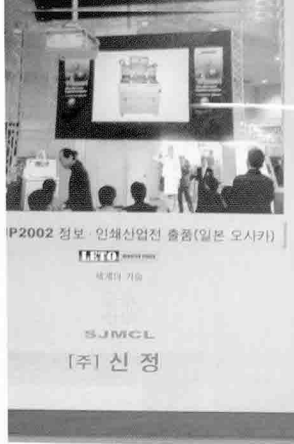


물이 맑아야 잉크와 물이 잘 혼합이 돼서 인쇄물이 보다 깨끗하고 선명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인쇄를 하다보면 물은 지저분해질 수 밖에 없다. 인쇄를 하면서 사용한 종이나 잉크의 지분들이 물에 섞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러워진 물들은 인쇄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쇄사에서는 보통 1주일에 한번 인쇄기 청소를 하게 된다.



INTERVIEW

습수정화장치

이기범  
신정정밀 부사장

세균도 함께 제거하는 습수여과장치 에버퓨어

깨끗한 물이 인쇄품질 향상 부른다

우리나라처럼 인쇄품질에 대해 까다로운 나라도 드물다. 소비자의 눈이 높은 만큼 인쇄업체들도 그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또한 마감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나라 인쇄업체들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인쇄업체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의 기계를 도입해 인쇄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기범 부사장은 “어떤 인쇄업체든지 인쇄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싼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말한다. 그럼 인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물이다. 물은 인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물과 잉크가 얼마나 잘 결합이 됐느냐에 따라 인쇄의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쇄기의 물을 깨끗이 정화하는 제품이 바로 신정정밀에서 공급하고 있는 에버퓨어다.

이기범 부사장은 “인쇄에서는 물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이 흐르는 물이면 상관이 없지만 인쇄기 안에 고여있는 물이라 문제가 된다. 한번 물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일주일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정화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물이 맑아야 잉크와 물이 잘 혼합이 돼서 인쇄물이 보다 깨끗하고 선명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인쇄를 하다보면 물은 지저분해질 수 밖에 없다. 인쇄를 하면서 사용한 종이나 잉크의 지분들이 물에 섞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러워진 물들은 인쇄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쇄사에서는 보통 1주일에 한번 인쇄기 청소를 하게 된다.

이기범 부사장은 “보통 인쇄기를 청소하고 H액을 넣고 하면 2~4시간정도 걸린다. 호스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청소하고, 인쇄 냉각기를 청소하는데 불필요한 시간들이 들어간다. 이러한 청소시간을 줄이

는 것이 바로 에버퓨어”라고 말한다.

### 자외선 램프 갖춘 습수여과 살균장치 에버퓨어

에버퓨어는 내경 호스 배관과 내측의 와이어를 넣은 호스, 아웃 측의 발포 호스로 되어 있고, 스펀지 필터 3개와 제4필터인 카트리리지 필터를 비롯해, 적색 패트라이트(경보)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PS판에 먼지 등이 붙는 것을 감소시키고, 물이 나오는 롤리의 잉크 묻음이 적어진다. 또한 PH의 정도도가 안정되면서 UV램프를 통해 살균처리를 한다.

살균처리 능력은 시간당 1800 리터로 가압펌프 출력은 250W이며 오프셋 인쇄기 뿐만 아니라 운전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살균 방식으로는 자외선 램프 40W를 사용하며, 그 수명은 6000시간이다.

이기범 부사장은 “에버퓨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살균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쇄기의 더러운 물이 필터를 통해 작은 조각들도 깨끗하게 걸러지지만 대장균이나 박테리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세균들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에버퓨어”라고 말한다.

일본 코스모텍, 독일 테크노트랜스 등 대표적인 외국의 습수정화장치 생산업체들이 있지만 이들 업체와 다른 것은 바로 UV살균장치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 습수정화장치는 필수

우리나라에는 습수정화장치를 공급하는 업체가 신정정밀밖에 없다. 게다가 습수정화장치가 있는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기범 부사장은 “우리나라에는 습수정화장치를 도입한 업체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외국의 전시회등을 다녀오신 사장님들의 경우 어느정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 분들이 이번 키페스때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였고, 또 도입을 고려중이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작은 인쇄업체라도 작업자들의 인쇄환경들이 잘 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 인쇄물의 단가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일본에 20여 대를 수출했다

### 인쇄사 사장들의 인식이 중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석명절이 짧았지만 설이나 추석때처럼 오랫동안 기계를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인쇄기안에 있는 물도 썩는다.

이기범 부사장은 “인쇄사 사장님들이 경험을 해 보셨지만 추석후에 출근하셔서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인쇄기의 악취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키페스때에도 많은 분들이 신정정밀 부스에 찾아오셔서 에버퓨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습수정화장치는 인쇄를 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다. 이 장치가 없다고 해서 인쇄가 안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인쇄인들의 건강과 품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반드시 우리 제품만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다. 습수정화장치는 인쇄품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즘 고가의 인쇄기들은 1억원을 넘어 10억원도 호가한다. 이렇게 비싼 인쇄기들은 비싼 만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인쇄할 시간도 부족하다보니 인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유해환경 발생지역을 단속하고 있는데, 특히 인쇄·출판업체 등의 폐수방류에 대해 수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